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의 다양성 : 회귀혼합모델의 적용

이 은 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괴롭힘 피해 및 가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의 이질적 특징을 탐색하고 이러한 이질적 관계의 이유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 332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귀혼합모델을 검증한 결과, 집단괴롭힘 피해 및 가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또래수용, 또래거부)의 관계패턴에 따라 가해자 무관형 집단(26%),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26%), 가해자 양면형 집단(21%), 그리고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27%)의 네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잠재계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소속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관계적 공격성이었으며, 신체적 공격성 및 언어적 공격성의 효과도 일부 집단비교에서 유의미하였다. 전반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가해자 양면형 집단보다는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및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사회적 선호도, 집단괴롭힘, 공격성, 성차, 또래관계, 회귀혼합모델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lee@knu.ac.kr

I. 문제제기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관계는 아동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기는 또래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Pellegrini, 2008).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불안, 외로움, 우울, 낮은 자기효능감, 학업적 어려움, 학교 결석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권재기, 2011; 이은주, 2002; 이은희, 2009; Buhs, Ladd & Herlad, 2006).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또래거부는 이후의 심리적·사회적 부정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Miller-Johnson et al., 2002).

아동 및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부정적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집단 괴롭힘이다. 집단괴롭힘(bullying)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Olweus, 1993; Vaillancourt, Hymel & McDougall, 2003). 집단괴롭힘은 국가나 성별, 연령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심각하고 치명적이지만 보편적인 부정적 현상이다(Eslea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에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교육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었을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단괴롭힘 실태조사(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09, 2011)에 따르면 1년간 1회 이상 집단괴롭힘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2009년도 9.4%에서 2011년도 11.8%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피해를 준 사람이 계속 피해를 준다는 응답이 44%, 가해학생이 같은 반 친구라는 응답이 54.8%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같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집단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선호도는 어떠한가? 집단괴롭힘 피해아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공격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낮은 또래수용과 높은 또래거부, 낮은 인기도 등)를 보여주고 있다(Arsenio & Lemerise, 2001). 반면 집단괴롭힘 가해아동의 또래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교사나 또래들에게 인기아로 지목되기도 하며 또래집단내

주도적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ell, Farmer & Cairns, 2007).

집단괴롭힘을 학교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부적응 문제로 인식하고 집단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여도 또래집단 내에서 관련 학생들이 높은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와 인기를 얻고 있다면 집단괴롭힘에 대한 개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집단괴롭힘이 긍정적 또래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해 및 피해아동에 대한 또래수용 및 또래거부의 정도에 다양한 개인차가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e.g., Farmer et al., 2010; Vaillancourt et al., 200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개인차가 나타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의 집단내 다양성(within-group variability) 혹은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이 또래관계에 대해 이질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이질적 효과가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이 나타내는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이들의 성별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관계와 집단괴롭힘의 관계는 몇 개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

둘째, 아동의 또래관계와 집단괴롭힘 간 이질적 관계를 나타내는 잠재계층은 아동의 성별 및 공격성의 유형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Olweus, 1993; Vaillancourt et al., 2003). 또래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모든 행동이 집단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Crick, Casas & Mosher, 1997; Lee, 2009),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괴롭힘이란 피해 대상에 대해 폭행이나 구타, 심한 욕을 하거나 놀리는 등 보다 외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하며, 간접적 괴롭힘이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소외, 내적인 배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Olweus, 1993). 이러한 집단괴롭힘의 유형은 공격성의 하위 유형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즉 공격성과 집단괴롭힘을 연관지어 볼 때, 직접적 괴롭힘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괴롭힘은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괴롭힘은 또래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이며, 집단괴롭힘의 가해아동은 또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적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Lee, 2009). 많은 아동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친구로 공격적 아동을 지목한다는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공격성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행동적 예측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LaFontana & Cillessen, 2002).

집단괴롭힘이 또래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격적 행동(peer-directed aggression)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괴롭힘은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집단괴롭힘 피해아동은 또래수용이나 지각된 인기(perceived popularity)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또래거부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Hanish, Ryan, Martin & Fabes, 2005). 그런데 집단괴롭힘 가해아동의 또래관계를 조사한 일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모든 가해아동이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것은 아니었으며(Farmer et al., 2010), 일부의 가해아동은 오히려 또래들 사이에서 높은 또래수용과 인기를 얻고 있었다(Vaillancourt et al., 2003).

집단괴롭힘과 또래거부 간 단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유형의 공격적 행동이 통제된 후에는 집단괴롭힘은 또래수용과 오히려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Price & Dodge, 1989). Lee(2009)에 의하면 가해 남학생은 낮은 사회적 선호도(낮은 수용과 높은 거부)를 보이는 반면, 가해 여학생은 양면형 지위(높은 수용, 높은 거부)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여학생들의 경우 가해행동은 또래거부와 관련이 있었지만 동시에 또래수용과도 관련이 있었다. Sentse, Scholte, Salmivalli and Voeten (2007)은 가해아동, 피해아동, 및 가해-피해아동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또래관계를 알아본 결과, 가해-피해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또래지위가 낮았다. 반면 가해아동은 사회체계에 잘 통합되고 있으며 모범생 친구들과

도 잘 어울리고 있으며 또래관계 내에서 주도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Hawley, 2002).

그런데 가해행동이 또래집단 내에서 지배적 지위 및 또래 리더쉽과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해서 가해아동이 모든 또래들에게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해아동을 수용하는 또래들은 아마도 이들의 가해행동을 강화하거나 부추기는 집단일 것이다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가해아동들은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의 대상이 된 또래들로부터는 거부당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가해아동들은 아마도 일부 또래들에게는 수용되면서도 다른 일부의 또래들로부터는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의 각 차원(또래수용, 또래거부)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피해행동 및 가해행동과 이들의 사회적 선호도의 이질적 관계를 보여주는 하위계층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집단괴롭힘과 또래관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이질적 관계 : 공격성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에 다양한 개인차가 있는 이유는 공격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이것은 집단괴롭힘에 대한 차별적 민감성(differential suscepti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 및 피해행동에 따른 사회적 선호도의 정도를 조절하는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집단괴롭힘의 가해아동이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은 그 유형(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따라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또한 남학생이 표출하는 신체적 공격성(혹은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과 여학생의 그것이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을까? 남녀 아동은 각기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나 나쁜 행동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Crick, Grotpeter & Bigbee, 2002; Waasdorp & Bradshaw,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이질적 관계에 대한 조절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및 이들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행동의 유형별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격성의 유형별 차이

집단괴롭힘 피해 및 가해아동의 또래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또래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공격적 행동을 선택하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각 유형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독특한 구인이다(Crick et al., 1997). 특히 공격성이 또래관계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공격성의 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illessen & Mayeux, 2004; Leadbeater, Boone, Sangster & Mathieson, 2006).

Lee(2009)는 공격성의 각 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해 독특한 정보를 제공함을 보여주었다. 각 유형의 공변량이 통제된 후에 신체적 공격성의 증가는 남녀 모두의 또래거부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언어적 공격성은 또래거부와 남아에게서 정적 상관을 여아에게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여학생들의 또래거부만 설명하였다.

Salmivalli, Kaukiainen and Lagerspetz(2000)은 핀란드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하위 유형들과 또래 관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은 여학생의 또래거부와 가장 분명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은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나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는 또래거부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 간접적 공격성은 또래거부와 관계가 없거나 부적상관이 있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은 오히려 또래수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신이 또래들에게 별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여아는 그렇지 않은 여아에 비해 또래수용이 낮고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또래수용이나 고립감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성별 차이

집단괴롭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Solberg, Olweus & Endresen, 2007). 그런데 괴롭힘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폭력과 같은 직접적 괴롭힘은 남학생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괴롭힘(예; 사회적 고립이나 거부, 소문 퍼트리기)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Putallaz et al., 2007). 남아는 또래괴롭힘의 수단으로 신체적 위협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사회적 및 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Cullerton-Sen & Crick, 2005). Lee(2009)에 의하면, 아동에게 가해아동을 지명하도록 했을 때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남아와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여아를 가해아동으로 지목하였다.

남녀 아동은 각기 자신의 또래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한다(Crick & Grotpeter, 1995).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직접적이고 통제적인 목표(control goal)를 추구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보다 관계지향적이며 상호적 목표(communal goal)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Leadbeater et al., 2006). 남학생들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지위(status)에 관심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친밀감과 관계에 관심이 있다(Waasdrorp & Bradshaw, 2011). 이러한 성별 차이로 인해 남녀 아동이 주로 나타내는 공격성의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실제로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경우 또래거부의 정도는 남아에게서 현저히 높았다(Salmivalli et al., 2000). 언어적 공격성과 또래거부의 관계에서 남아는 정적상관을, 여아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Lee, 2009). 또한 친구관계에 상처를 입은 피해여아가 피해남아에 비해 괴롭힘이 유해하다고 생각하였다(Crick et al., 200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별이 집단괴롭힘과 또래관계의 이질적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찰대상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이질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찰변수 중심적 접근보다는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이 타당할 것이다. 관찰 대상 중심적 접근은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분석의 단위인 관찰 변수 중심적 접근과 다르다(Bergman & Magnusson, 1997). 이 방법은 아동발달의 이질성을 강조하며, 하위집단을 구성하는 아동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데 적절하다(von Eye & Bogat,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집단괴롭힘의 이질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혼합모텔(regression mixture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간 관계에 차이를 보이는 몇 개의 잠재계층(latent class) 또는 잠재집단의 구분이 가능하다.

회귀혼합모텔은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의 강점을 한 연구에 통합한 것으로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의 이질적 관계에 따라 하위계층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Van Horn et al., 2009). 모든 개인이 하나의 집단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 회귀분석방법과 달리, 회귀혼합모텔은 집단동질성(population homogeneity)에 대한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측정되지 않는 하위집단에 걸쳐 추정치가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Ding, 2006). 회귀혼합모텔은 일반성장혼합모텔(general growth mixture model; Muthén & Muthén, 2000)이나 준모수적 발달궤적모텔(semi-parametric trajectory model; Nagin, 2005)과 같이 집단 내 잠재계층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잠재계층이 규정되는 방식에서 다른 모델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혼합모텔(mixture model)에서 잠재계층은 평균, 변량, 또는 공변량에 의해 결정된다. 즉 결과변인에 따라 몇 가지 잠재계층을 구분한 후 예측요인들이 이러한 잠재계층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집단괴롭힘이 class membership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집단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예측요인들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차이가 이질적인지(즉, 집단괴롭힘이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회귀혼합모텔의 경우 결과변인의 평균, 변량, 공변량 뿐만 아니라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효과도 잠재계층 간에 다르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영향의 잠재계층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계층이 확인된 후에는 개인이나 환경적 특성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즉, 잠재계층의 설명변인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관심을 둔 이유는 후기 아동기에 공격성 및 집단괴롭힘의 개인차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Perry, Kusel & Perry, 1988).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초등학교 2개교에서 10개 학급이 표집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총 332명으로, 164명의 남학생(49.4%)과 168명의 여학생(50.6%)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28.2%가 고졸 이하였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은 71.8%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 21.7%, 300~500만원은 40.1%, 300만원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이 38.2%로 나타났다.

학급단위로 조사해야 학급내 집단괴롭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단위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 내용은 학급내 집단괴롭힘 및 공격성에 대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학급내 친구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만약 학생들의 질문지 문항에 대한 반응이 또래들에게 노출된다면 또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질문내용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였다.

2. 측정도구

1) 집단괴롭힘

집단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 아동의 편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측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또래보고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래보고 방법은 다수의 응답자의 반응을 종합하기 때문에 비록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대단히 신뢰로울 수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학생들에게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각각 3명 정도 지명하도록 하고, 개

인별로 같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산출하였다. 집단괴롭힘이 단지 신체적 괴롭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또는 관계적 괴롭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급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급내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선호도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Coie와 Dodge(1983)가 사용한 또래지명 절차를 사용하여 또래수용과 또래거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또래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또래거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상황에서 함께 하기 싫은 친구도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개인별로 같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산출하였다. 학급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또래수용 및 또래거부에 해당하는 지명 빈도를 학급내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수용 및 또래거부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들이 싫어하는 것과 또래들에게 무시당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Coie et al., 1990). 비록 수용과 거부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기는 하지만(Lee, 2009), 거부당하는 아동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용과 거부는 또래집단 내에서 지위를 나타내는 비교적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또래수용과 또래거부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mivalli et al.(200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세 명의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였다. Crick과 Grotpeter(1995)의 제안에 따라, 동성 친구만 지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았다.

신체적 공격성($\alpha=.87$)은 (1)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협하는 친구; (2)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망가트리는 친구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공격성($\alpha=.76$)은 (1)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심하게 놀리기를 가장 많이 하는 친구; (2)다른 친구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을 하는 친구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적 공격성($\alpha=.83$)은 (1)헛소문으로 친구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게 하는 친구; (2)다른 친구를 고의로 끼어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친구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같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산출했다. 학급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급별로 각 항목별 지명 빈도를 표준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 간에 이질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혼합모델을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대한 민감성에 차이를 보이는 계층이 몇 개로 구분되는지 알아보았다. 예측요인과 결과변인의 관계패턴을 기준으로 비슷한 개인들을 같은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선호도 점수(i.e., 또래수용과 또래거부)의 절편은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계층에 따라 오차변량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모수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활용하였다.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 계층크기, 각 계층의 실제적 유용성 등을 고려하였다. 아카이케 정보량 기준(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이나 베이저안 정보량 기준(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은 표집의 크기나 추정모수의 수를 고려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T)는 계층의 수가 다르게 추정된 두 모형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느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지를 알려주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LMRT 지수는 하나 적은 수($k-1$)의 계층을 추정한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ntropy 지수는 개별사례가 주어진 계층에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적합지수이며,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값이 클수록 분류가 정

확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의 실제적인 유용성을 평가하였다(Nagin, 2005). 이 기준은 k계층이 미미한 분포(예를 들어, 5% 미만)를 나타내거나 다른 계층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k-1계층이 선택되는 것을 의미한다(Muth  n & Muth  n, 2000).

잠재계층이 구분되고 나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계층이 구분되게 되었는지, 즉 공격성의 각 유형(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및 성별이 계층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예측요인이 계층구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한 계층이 준거집단(reference class)이 되므로, 각 추정치는 해당 예측요인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주어진 계층에 소속될 확률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건모델은 이항변인(i.e., 성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Monte Carlo integration으로 수치적분법(numerical integration)을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Mplus 6.1을 활용하였다(Muth  n & Muth  n, 1998-2010).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표 1에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또래수용이 낮았다($r = -.30$, $p < .001$). 피해자로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또래수용은 낮고($r = -.30$, $p < .001$), 또래거부는 높았다($r = .65$, $p < .001$).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가해자로 지명된 정도는 또래거부 및 또래수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또래수용은 낮고($r = -.22$, $p < .01$), 또래거부는 높았다($r = .72$, $p < .001$).

공격성의 유형별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들의 경우,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거부가 심하였으며($r = .16$

~ .23, all $ps < .05$), 또래수용이 낮았다($r = -.17 \sim -.22$, all $ps < .05$). 이와 반대로 여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지만($r = .18$ 과 $.27$, all $ps < .05$), 신체적 공격성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수용은 낮았으며($r = -.26$, $p < .01$)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수용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괴롭힘 관련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사용하는 공격성의 유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연구변인들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신체적	—	.27***	.37***	-.05	.05	.29***	.00
2. 언어적	.57***	—	.61***	-.26**	.18*	.32***	.02
3. 관계적	.67***	.71***	—	.03	.27**	.43***	.17*
4. 또래수용	-.22**	-.17*	-.19*	—	-.30***	.13	-.22**
5. 또래거부	.23**	.21**	.16*	-.14	—	.14	.72***
6. 가해행동	.12	.27**	.28***	-.30***	.10	—	.19**
7. 피해행동	-.03	-.07	-.01	-.30***	.65***	.19*	—
남	.24(1.21)	.33(1.24)	-.02(.86)	.02 (.94)	.01 (.97)	-.07(.67)	-.01(.89)
여	-.17(.65)	-.18(.63)	-.04(.91)	.01(1.09)	-.03(.99)	.13(1.07)	-.03(.87)
t-value	3.89***	4.75***	.14	.05	.37	-2.02*	.23

NOTE.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여학생, 아래는 남학생의 상관관계수임 (남 N=164; 여 N=174).

*** $p < .001$, ** $p < .01$, * $p < .05$

2. 하위계층의 검증

먼저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의 유형에 따라 하위계층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혼합분석(regression mix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2에 2계층에서 5계층까지 계층 수를 달리한 모형에 대해 모형적합 지표와 각 계층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AIC와 BIC가 낮을수록 적합한 모델임을 의미하므로(Muthén & Muthén, 2000), 5

계층 모델이 최적 모델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AIC와 BIC의 값이 최저수준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보다는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또한 5계층 모델의 경우, 가장 작은 계층에서 5% 미만의 응답자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계층은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4계층 모델을 최적모델로 선정하였으며, 이후의 분석은 4계층 모델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계층 1은 26%(n=87), 계층 2는 26%(n=85), 계층 3은 21%(n=70), 계층 4는 27%(n=90)의 응답자가 포함되었다. 4계층 모델의 Entropy(모델이 개인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하는가)는 .887이었다.

표 2

회귀혼합모델의 적합도 지수

Criterion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Log-likelihood	-812,034	-569,546	-486,211	-454,315	-371,001
# of Parameters	9	19	29	39	49
AIC	1642,067	1177,092	1030,423	986,630	840,002
BIC	1675,954	1248,631	1139,613	1113,919	1024,497
Entropy		.845	.865	.887	.892
LMRT		506,538	285,330	64,102	126,499
P value		.000	.0013	.000	.000
Class 1 (%)	100	45.77	27.26	25.71	24.05
Class 2 (%)		54.23	36.99	26.33	27.44
Class 3 (%)			35.75	21.00	19.63
Class 4 (%)				26.96	4.72
Class 5 (%)					24.16

NOTE.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T= Lo-Mendell-Rubin likelihood-ratio test of model fit.

3. 하위계층의 의미

다음으로 각 하위계층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4계층 솔루션을 선택하기 전에, 4계층이 의미있고 충분히 구별될 만한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에 4계층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각 계층에 걸쳐 가해행동과 피해행

동은 사회적 선호도와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계층 1은 전체의 25.7%를 차지하며 가해행동은 사회적 선호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비록 피해자로 지명된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수용은 낮고 또래거부는 높았지만, 가해자 지명정도는 이러한 사회적 선호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에 속한 아동들은 사회적 선호도에서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즉, 다른 계층에 비해 중간 수준의 또래수용 및 거부를 나타냈다. 가해행동이 사회적 선호도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 계층은 “가해자 무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4계층 모델의 추정치

	가해자 무관형			피해자거부/ 가해자수용			가해자 양면형			피해자거부/ 가해자비수용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수용												
가해	.08	.07	1.19	.13	.07	1.99	-.31	.10	-3.05	1.17	.63	1.85
피해	-.27	.06	-4.23	-.32	.03	-12.21	-.15	.05	-2.76	-.35	.07	-5.02
거부												
가해	.02	.02	1.36	-.02	.03	-.95	-.16	.08	-2.05	-1.18	.07	-16.86
피해	.24	.02	12.85	.70	.04	20.13	.55	.05	11.46	.28	.02	14.03
초기치												
수용	.21	.13	1.68	.05	.09	.61	.50	.11	4.61	.35	.21	1.66
거부	-.08	.04	-2.18	.08	.03	2.48	.99	.07	5.94	-.86	.03	-28.64
오차												
가해	.03	.01	2.83	.10	.03	3.35	.75	.22	3.35	.00	.00	12.29
피해	.59	.10	6.24	.64	.08	8.18	.62	.25	2.52	.84	.14	5.95

계층 2는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였다. 이 계층은 사회적 선호도에서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층 1과 비슷하였다. 즉 다른 계층과 비교해 중간 수준의 또래거부와 또래수용을 나타냈다. 피해자 지명정도는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또래수용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와 반대로 가해행동은 또래수용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계층을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였다. 이 계층은 높은 수준의 또래거부와 또래수용을 나타냈다. 가해행동은 또래수용 및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해자로 지명을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또래거부 뿐만 아니라 또래수용도 높았다는 점에서 이 계층은 “가해자 양면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4는 전체의 약 27%가 포함되었다. 이 계층에 속한 아동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또래수용과 낮은 또래거부를 나타내어 다른 계층에 비해 사회적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즉, 피해자로 지명될수록 또래거부는 높고 또래수용은 낮았다. 반면 가해자로 지명될수록 또래거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계층을 “피해자 거부/가해자 비수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 계층분류를 예측하는 요인

이제 다음 단계로서 회귀혼합모형을 통해 얻어진 네 개의 잠재계층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회귀혼합모형에서 얻어진 네 계층이 종속변수가 되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공격성의 각 유형(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 및 성별에 따라 이질적 관계(differential association)가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수를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4 vs. C1			C4 vs. C2			C4 vs. C3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18	.34	.83	.60	.37	.55	-.58	.48	1.78
관계적	1.39**	.47	4.04	1.94***	.45	6.95	1.01*	.43	2.76
언어적	.22	.34	1.24	.36	.26	1.44	.81**	.29	2.25
신체적	-.35	.27	.71	-.61**	.23	.54	.16	.22	1.18

NOTE. C1=가해자 무관형 집단; C2=피해자 거부/가해자 수용 집단; C3=가해자 양면형 집단; C4= 피해자 거부/가해자 비수용 집단. OR=Odds Ratio

계층구분에 대한 예측요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모델의 엔트로피가 .887이었는데, 예측요인을 투입함으로써 엔트로피가 .923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예측요인을 투입함으로써 모델이 아동을 네 계층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는 각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계층 간 차이는 이들이 사용하는 공격성의 유형 및 성별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계층 간 비교를 위해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class)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추정치는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각 집단에 소속될 확률(log odds)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가해자 무관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4.04로서, 이들이 가해자 무관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소속될 확률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들어갈 확률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6.95로서 약 7배 정도 높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서($OR=.54$),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2.76으로서, 관계적 공격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높은 아동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2.76배 정도 높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 대비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OR=2.25$). 따라서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2.25배 정도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성별 예측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일수록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에 비해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승산비는 약 1.78정도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가적으로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과 가해자 양면형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

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공격성의 세 유형 및 성별은 모두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과 가해자 양면형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 및 신체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비해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가해아동에 대해 양면형 지위를 부여하는 가해자 양면형 집단에 비해 가해아동이 수용되는 경향이 강한 집단, 즉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종합하면, 관계적 공격성이 네 집단의 소속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집단에 속할 가능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네 집단 중에서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가해자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가해자로 지명될수록 또래수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혼합모델의 검증을 통해 집단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의 다양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집단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에 다양한 패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계의 패턴에 따라 네 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질적 관계에 작용하는 조절변인 즉, 공격성의 유형 및 성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행동과 사회적 선호도(또래수용, 또래거부) 간의 이질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이 적합하였다. 집단괴롭힘 피해 및 가해정도와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패턴에 따라 가해자 무관형 집단(26%),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26%), 가해자 양면형 집단(21%), 그리고 피해자 거부/ 가해자 비수용 집단(27%)의 네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잠재계층에 따라 집단괴롭힘

피해행동 및 가해행동이 또래수용과 또래거부에 이질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 집단 중에서 가해자 무관형 집단은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 간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전체 아동의 26%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경우 집단괴롭힘이 사회적 선호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26%의 아동은 가해행동과 또래수용 간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 다른 21%의 아동은 가해행동이 높을수록 높은 또래수용뿐만 아니라 높은 또래거부를 동시에 수반함을 보여주었다(가해자 양면형 집단). 이러한 결과는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가 다양하며, 이러한 관계에 이질적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de Bruyn, Cillessen and Wissink(2010)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은 또래집단 내 지위에서 최하의 위치에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아동도 나타내는 이중적 행동(bimodal behavior)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네 잠재계층은 공격성의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구분되었다. 전반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은 네 집단에 걸쳐 아동의 집단소속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네 집단 중에서 피해자 거부/ 가해자 수용 집단에서 가해아동이 가장 많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선호도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가해자로 지명되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높은 수준의 또래수용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왜 공격성과 또래거부의 관계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강하지 않으며, 왜 가해 여학생이 양면형 사회적 지위를 갖거나 심지어 높은 또래수용을 얻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자의 내부집단(inner circle)으로부터 특정 아동을 배척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집단에는 가해아동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을 것이며, 이들은 가해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Sutton, Smith and Swettenham (1999)에 의하면, 반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비행을 하는 또래들은 가해아동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비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선호도는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Salmivalli et al.(2000)은 평균 이상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다면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ose, Swenson and Waller(2004)에 의하면, 여학생들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간 정적 상관은 상호적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비록 타인에게는 배척을 당할 지라도, 자신의 내부집단에서는 또래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힘(social power)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천적인 함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의 이질성 및 복잡성을 강조한다. 집단괴롭힘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녀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이질적 민감성(differential susceptib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좀 더 또래들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래를 괴롭히는 방식이나 이들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이질적 민감성이 달라진다. 즉, 집단괴롭힘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동은 집단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또래거부를 당할 것이다(Sentse et al., 2007). 교실의 행동규범은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은 집단괴롭힘이 비규범적인 교실환경에서 더욱 높은 또래거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집단괴롭힘이 규범적인 교실환경에서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은 거부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들을 좋아하는 또래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집단괴롭힘은 또래집단의 역동성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집단역동성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또래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집단역동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de Bruyn et al., 2010; Sentse et al., 2007). 따라서 집단괴롭힘에 대한 개입 전략은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격성이 표출되는 또래집단의 전체적 역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변인 간 단순상관이나 회귀분석 연구에 그친데 비해 본 연구는 회귀혼합모델의 검증을 통해 관계의 다양한 패턴을 이끌어냄으로써 집단내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잠재계층의 구분을 통해 관찰대상의 이질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한 집단이 하나의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야기되는 단순화와 일반화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장점을 지닌다(임효진, 2012; Ding, 2006). 둘째,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조절변인을 밝혔다. 이는 점이다. 동일한 집단괴롭힘 행동 이후에 이들이 경험하는 또래의 반응은 이들이 보여준 행동양식이나 성별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예측요인 및 결과변인 모두 아동보고 방식에만 의존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변량(shared method variance)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소속에 대한 판단에 후광효과(halo effect)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e.g., Katz, 2003).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관계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공격성의 유형 및 성별에 한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질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요인에는 교실내 행동규범과 같은 집단 맥락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Sentse et al., 2007).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공격적 행동의 형식(forms)에 따라 외현적(overt) 및 관계적(relational) 공격성으로, 공격적 행동의 기능(function)에 따라 도구적(instrumental) 및 반응적(reactive)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있다(Little, Henrich, Jones & Hawley, 2003). 그런데 본 연구는 공격성의 기능별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성의 형식에 대한 구분만 포함하였다. 즉 아동이 어떻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가만 고려하였을 뿐, 이들이 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제한점이 있다.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외현적(overt) 공격성이나 반응적(reactive)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및 주도적(proactive) 공격성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de Bryun et al., 2010)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후속연구를 통해 가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도구적인지 주도적인지, 혹은 반응적인지 병리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잠재계층 성장분석(LCGA)·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이동복지학**, 34, 95-126.
- 이은주 (2002). 내·외향적 행동문제와 집단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또래 관계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 15(2), 345-363.
- 이은희 (2009).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중학생의 등교공포와 교내폭력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3), 281-304.
- 임효진 (2012). 사회적 행동이 읽기성장에 미치는 영향: 잠재집단 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자료 분석. **교육심리연구**, 26(1), 199-224.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2011).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Arsenio, W. F., & Lemerise, E. A. (2001). Varieties of childhood bullying: Values, emotion processes, and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59-73.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291-319.
- Buhs, E. S., Ladd, G. W., & Herlad, S. L. (2006).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Processes that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er group rejection and children's classroom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 1-13.
- Cillessen, A.,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Coie, J., & Dodge, K.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1.
- Coie, J., Dodge, K., & Kupersmidt, J.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Asher, & J.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79-588.
- Crick, N., &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ullerton-Sen, C., & Crick, N. R. (2005).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hysical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The util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predicting social-emotiona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34, 147-160.
- de Bruyn, E. H., Cillessen, A., & Wissink, I. (2010). Associations of peer acceptance and perceived popularity with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 543-566.
- Ding, C. S. (2006). Using regression mixture analysis in educational research.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1, 1-11.
- Eslea, M., Menesini, E., Morita, Y., O'Moore, M., Mora-Merchán, J. A., Pereira, B. et al. (2004). Friendship and loneliness among bullies and victims: Data from seven countries. *Aggressive Behavior*, 30, 71-83.
- Estell, D. B., Farmer, T. W., & Cairns, B. D. (2007). Bullies and victims in rural African American you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network placement. *Aggressive Behavior*, 33, 145-159.
- Farmer, T., Petrin, R., Robertson, D., Fraser, M., Hall, C., & Day, S. et al. (2010). Peer relations of bullies, bully-victims, and victims: The two social worlds of bullying in second-grade classrooms. *Elementary School Journal*, 110(3), 364-392.
- Hanish, L. D., Ryan, P., Martin, C. L., & Fabes, R. A. (2005).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4, 2-19.

- Hawley, P. H. (2002). Social dominance and prosocial and coercive strategies of resource control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167-176.
- Katz, S. (2003). Physical appearance: The importance of being beautiful. In J. M. Henslin (Ed.), *Down to earth sociology: Introductory readings* (12th ed., pp. 313-320). New York: Free Press.
- LaFontana, K. M., & Cillessen, A. (2002). Children's perceptions of popular and unpopular peers: A multimethod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 635-647.
- Leadbeater, B., Boone, E., Sangster, N., & Mathieson, L. (2006). Sex differences in the personal costs and benefit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high school. *Aggressive Behavior, 32*, 409-419.
- Lee, E. J. (2009). The relationship of aggression and bullying to social preference: Differences in gender and types of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4), 323-330.
- Little, T. D., Henrich, C. C., Jones, S. M.,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Miller-Johnson, S., Coie, J. D., Maumary-Gremaud, A., Bierman, K.,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2).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nd early starter models of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217-230.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Muthén, B. O., & Muthén, L. K. (1998-2010). *Mplus User's Guide* (Sixth ed.). LA, CA: Muthén & Muthén.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Patterson, G. R., DeBaryshe, B.,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5.
- Pellegrini, A. D. (2008). The role of aggressive and affiliative behaviors in resource control: A behavioral ec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28, 461-487.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rice, J., & Dodge, K. (1989).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Relations to peer status and social context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455-471.
- Putallaz, M., Grimes, C. L., Foster, K. J., Kupersmidt, J. B., Coie, J. D., & Dearing, K. (2007).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Multiple perspectives within the school setting.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523-547.
- Rose, A., Swenson, L., & Waller, E.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78-387.
- Salmivalli, C., Kaukianen, A., & Lagerspetz, K. (2000). Aggression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peers: Do gender and type of aggression matte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1(1), 17-24.
- Sentse, M., Scholte, R., Salmivalli, C., & Voeten, M. (2007). Person-group dissimilarity in involvement in bullying and its relation with social statu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5, 1009-1019.
- Solberg, M. E., Olweus, D., & Endresen, I. M. (2007). Bullies and victims in school? Are they the same pupi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441-464.

- Sutton, J., Smith, P., & Swettenham, J. (1999). Bullying and “theory of mind”: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8(1), 117-127.
- Vaillancourt, T., Hymel, S., & McDougall, P. (2003). Bullying is power: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 157-176.
- Van Horn, M. L., Jaki, T., Masyn, K., Ramey, S. L., Smith, J., & Antaramian, S. (2009). Assessing differential effects: Applying regression mixture models to identify variations in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on academic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 1298-1313.
- von Eye, A., & Bogat, G. A. (2006). Person-oriented and variable-oriented research: Concepts, results, and development. *Merrill-Palmer Quarterly*, 52, 390-420.
- Waasdorp, T. E., & Bradshaw, C. P. (2011). Examining student responses to frequent bullying: A latent class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3(2), 336-352.

ABSTRACT

Differential association of social preference in term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 A regression mixture approach

Lee, Eunju*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heterogeneous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ferences and bullying/victimization as well as a number of plausible reasons for these differences. 332 sixth graders (51% girls) were used as subjects, and regression mixture analysis identified four latent classes with varying associations between social preferences on the one hand and bullying and victimization on the other; No Preference to Bully Class, Reject Victim-Accept Bully Class, Controversial to Bully Class, and Reject Victim-Not Reject Bully Class. 26%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belonging to the No-Preference to Bully Class, indicating that one fourth of children do not reveal any differences in terms of social preference regardless of their bullying behaviors. Peer-reported relational aggression was the most predictive of class membership. Latent class differences in physical aggression, verbal aggression, and children's gender were also found. Overall, children with higher relational aggression had significantly greater odds of being in the Reject Victim-Accept Bully Class than in any other classes. Higher relational aggression, lower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was predictive of children being more likely to be in the Reject Victim-Accept Bully Class than in the Controversial to Bully Cla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eer relations, bullying, aggression, regression mixture, gender differences, social preference

투고일 : 2013. 3. 7, 심사일 : 2013. 5. 6, 심사완료일 : 2013. 5. 14

*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